

작품 내용

제 목	만약 세상에서 저작권이 사라진다면
내 용	어느 날 아침, 세상에서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환호했다. 모든 영화, 음악, 책, 그리고 최신 소프트웨어까지 세상의 모든 창작물을 아무런 대가 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거리마다 무료로 내려받은 음악이 넘쳐났고, 인터넷은 타인의 작품을 그대로 복사해 붙여 넣은 콘텐츠들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 달콤한 축제에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작곡가 태훈은 몇 달 동안 밤을 새우며 영혼을 갈아 넣은 신곡을 세상에 발표했다. 하지만 발매된 지 채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그의 노래는 낯선 사람들의 이름으로 둔갑해 온갖 플랫폼에 업로드 되었다. 심지어 거대 자본을 가진 기업들이 그의 멜로디를 그대로 가져가 광고 음악으로 쓰며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다. 정작 원작자인 태훈에게 돌아온 것은 단돈 1원도 없었다. 억울함에 항의해 보려 했지만, 세상에는 더 이상 그의 권리를 지켜줄 법도, 제도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비극은 태훈만의 일이 아니었다. 소설가들은 밤낮으로 쓴 문장을 통째로 도둑맞았고, 미술가들의 그림은 허락 없이 온갖 상품의 포장지로 인쇄되어 소비되었다. 창작자들은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무엇보다 “내가 왜 이제 창작을 해야하는 걸까? 그냥 나도 퍼오지 뭐.”라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피땀 흘려 만든 결과물을 아무나 가져가서 주인이 되어버리는 세상에서, 창작은 고귀한 예술이 아니라 미련한 짓이 되어버렸다. 먼저 변화를 반기던 사람들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인터넷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와 가짜 창작물이 넘쳐났고, 누가 진짜 원작자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왔다. 기업들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기존 작품만 무분별하게 복제하며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려는 노력을 줄이고, 학교에선 학생들이 과제를 작성할 때 생각을 하기보단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글을 그대로 가져와 제출하는 일이 흔해졌다. 점점 사람들은 변해버린 사회에 익숙해졌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능력도 점차 사라져갔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사람들은 하나둘씩 불편함을 느껴갔고, 깨달았다. 저작권이 단순히 창작자의 이익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창작자의 노력과 시간을 존중하고 새로운 문화와 기술이 계속 발전하도록 돕는 중요한 약속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 만큼이나,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도 건강한 사회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사람들은 하나둘씩 다시 저작권을 지키기 시작했다. 다시 새로운 소설, 신기한 이야기들, 새로운 게임과 음악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태훈도 다시 마음을 고쳐잡고, 열심히 새로운 곡을 만들었다. 그렇게 사회는 다시 평화로워졌다.